

##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 인문계열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일련의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올가미에 걸렸다는 이런 느낌의 근저에는 전체 사회구조 자체의 비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한 사회가 산업화되면 농부는 노동자가 되고 봉건 영주는 완전히 파산하든가 아니면 기업가로 변한다. 자본투자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산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보험 회사 외무사원이 로켓 발사 대원이 되기도 하며 상점 점원이 레이더 대원이 되기도 한다. 또 아내는 독수공방하고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역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역사적 변동과 제도적 모순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리는 안락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큰 흥망성쇠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양식과 세계사 행로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자신의 미래와 장차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할지도 모를 역사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들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그리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데 긴요한 정신적 자질이 부족하다. 그들은 개인적 문제를 그 이면에 항상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재구성 -

(나)

시(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험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 함민복, 「긍정적인 밥」 -

(다)

사냥터지기의 주요 임무는 관리하도록 맡겨진 땅에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른바 땅의 ‘자연적 균형’, 즉 신이나 자연의 무한한 지혜의 체현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의 임무는 자연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밀렵꾼의 덫을 찾아내 제거하고 불법 사냥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냥터지기의 일은, 만사는 어설프게 손을 댈 바에야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전근대 시대에 그들은, 비록 신의 설계에 담긴 지혜와 조화, 질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세계는 삼라만상이 적재적소에 놓여있는 신성한 존재의 사슬이므로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원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가 끊임없이 보살피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을 거라고 가정한다. 정원사는 자기가 가꾸는 정원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라야 하고 어떤 식물이 자라면 안 되는지 더 잘 안다. 그는 우선 머리에 바람직한 배치도를 마련한 다음에 정원을 그 이미지에 맞춘다. 그는 적합한 종류의 식물들은 성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식물들, 즉 ‘잡초’라고 개명된 것들은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대지를 자신이 생각해놓은 디자인으로 재구성한다. 정원사는 언제나 정원사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청사진 속의 이상적으로 조화로운 이미지에서 그 원형을 드러낸다.

사냥꾼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전체적인 ‘균형’에는 신경을 덜 쓴다. 사냥꾼이 추진하는 유일한 일은 자루를 최대한 채워 줄 만큼 큰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냥이 끝난 다음에도 숲에 사냥감이 어슬렁거리도록 그것을 다시 채워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분별없이 사냥감을 마구 잡은 탓에 숲에서 사냥감이 고갈되면, 사냥감이 남아있는 또 다른 숲으로 옮겨갈 수 있다. 막연한 먼 미래에 사냥감이 남아있는 숲이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그렇게 급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걱정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지그문트 바우만, 『모두스 비벤디』 재구성 -

[문제1-1] 제시문 (가)와 (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다)의 ‘사냥터지기’와 ‘정원사’의 태도를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제시문 (다)의 ‘사냥꾼’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정치와 경제는 상당한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 정치와 경제는 모두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거래활동이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듯이, 유권자들은 표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를 구분 짓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경제는 개별적 의사결정인 반면, 정치는 집합적 의사결정이다. 시장거래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정치거래에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구매행위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얻기 위해 표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며, 가장 많은 표를 제시할 수 있는 다수집단이 원하는 정책을 얻게 된다. 집합적 의사결정은 원치 않는 의사결정 결과를 준수해야 하는 소수집단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원하는 정책을 얻는데 실패한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순응비용”이 초래된다.

시장거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가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반면 정치거래에서는 소수의 경제적 유력집단이 과도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여 다수의 일반 유권자에게 순응비용을 부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정치에서는 경제적 유력집단이 많은 표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살 수 없다. 정치에서는 소수의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할 경우,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일반 유권자들이 순응비용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효율성의 원리보다 평등의 원리가 규범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시민들은 또한 자신에게 부과될 순응비용 때문에 투표와 같은 단순한 소비활동만 하기보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하려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정책이 초래하는 순응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급진적인 유권자들은 온건한 유권자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인적, 재정적 정치자원을 제공하고, 후보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제공하는 정치자원을 사용한다. 정치자원은 후보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들은 급진적인 유권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나)

경제학자 호텔링(Hotelling)은 가능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두 판매상이 도로의 어떤 곳에 가게를 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호텔링은 두 가게의 상품의 질은 동일하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집과 더 가까운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경우, 호텔링은 두 판매상은 소비자들의 중간에 위치한 곳에 가게를 열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치학자 다운스(Downs)는 경쟁하는 두 정당이 일차원적 정책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어떤 정책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호텔링과 마찬가지로, 다운스 역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입장과 더 가까운 입장을 제시하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다운스는 유권자들이 이처럼 투표할 경우, 두 후보는 가능한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공간에서 중앙에 위치한 투표자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문제 2-1]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에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가 정치거래와 시장거래에서의 ① 규범적 원리와 ② 행위자들의 행태에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가를 요약하여 설명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가)에서 제시된 정치와 경제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나)의 다운스의 결론을 비판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